

\*\*\*\*\*

새시대 교수법 163호 한국공학교육기술학회 / 조벽

\*\*\*\*\*

교육은 사람이 무슨 말을 듣던지 자신감이나 진정을 잃지 않는 능력을 준다.

-- 로버트 프로스트

-----

## 말 귀담아 듣기 2

지난 호에는 남의 말 귀담아 듣기의 첫 번째 방법이 "시선을 집중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하는 상대에게 시선을 모으되 눈만 상대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몸마저 향해서 "나는 당신의 말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둘째 방법은 상대의 말 중간 중간에 짧은 반응을 보여 말에 장단을 맞히는 것입니다. 신바람은 아니라도 약간의 바람으로 화로 불이 모락모락 피어나듯 말도 계속 이어가게 해주어야 합니다.

### (2) 반응을 보인다.

남의 말을 듣는 데에 수동적인 자세가 있는가하면 능동적인 자세도 있습니다. 남이 말할 동안 묵묵히, 말 한마디 없이 듣고만 있으면 수동적인 자세입니다. 이와 반대로 말 사이사이에 "아, 예," "그렇군요," "그래요," 등 짤막한 말을 살짝 살짝 해주면 능동적인 자세인 것입니다. 남의 말을 능동적으로 들어야 하는 이유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명창이 "춘향이가 이도령 가슴에 얼굴을 파묻는데"하고 한 곡조 뽑으면 교수가 옆에서 "얼췌!"하고 장단을 맞춰주어서 분위기를 한층 돋구듯이 교수님께서도 학생의 말이 잘 나오도록 도와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말이 짧아야 합니다. 학생의 말을 끊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말 대신 고개를 끄덕이거나 적절한 얼굴 표정을 지어주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둘째, 말을 하는데 상대가 아무 말 없이 무표정을 짓고 있으면 조금 답답하기 때문입니다. 교수님께서 내 말을 이해하고 있는지, 내가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말이 우습게 들리지는 않은지... 학생들은 별별 걱정을 다 하게 됩니다. 교수님께서 학생의 비구어적 메시지를 감지할 필요가 있듯이 학생 역시 교수의 반응을 살피면서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반응이 확실하지 않으면 말하기가 머뭇거리집니다. 능동적인 자세는 상대의 말을 듣고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확실하게 알려 줍니다. 말하는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해줍니다.

가끔 장단이 너무 지나쳐 장난같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미있다고 크게 웃거나 놀랐다고 눈을 크게 뜨거나 등 과잉 반응을 보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모호한 반응도 자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학생의 말을 듣다보면 미소를 짓게 될

때가 흔합니다. 미소가 “나도 학생 시절 때 그런 생각을 했었지.”라며 동지의식을 나타내는지, 아니면 “암마, 난 너의 알팍한 생각을 이미 훤히 다 꿰뚫고 있어!”하며 속으로 가소로워하는 것인지 알쏭달쏭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저 “난 당신의 말에 흥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정도의 편한 미소를 짓는 것이 좋겠지요.

다음 호에는 세 번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조벽, 2002

\*\*\*\*\*

이전 발간물은 웹페이지에 올려져 있습니다.

<http://www.me.mtu.edu/~peckcho/korean.htm>

이 무료 간행물을 직접 받아 보시기 원하시면 subscribe teachwell-1 을 적어 peckcho@mtu.edu로 보내시면 자동 가입됩니다.

가입을 취소하실 경우에는 unsubscribe teachwell-1 을 적어 peckcho@mtu.edu로 보내시면 됩니다.

다른 사항은 조 벽 교수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peckcho@mtu.edu      전화: 미국(906) 487-2891      팩스: (906) 487-2822

\*\*\*\*\*